

◇ 완도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너른 백사장(4km)과 청정한 바다, 해상 숲이 어우러진 서남해안 대표 해수욕장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만 부여하는 국제 인증인 ‘블루 플래그(Blue Flag)’를 아시아 최초로 획득했다. 인근에 황토길도 조성돼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7.11.~8.17.) 동안 카약, 래프팅, 패들보드, 요트 체험 등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과 가족 단위 피서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도군 신지면에 있다. <관련기사 7면>

‘운암-각화 BRT’·‘효천-일곡 BRT’ 국가계획 포함

〈간선급행버스체계〉

광주 도심 주요 생활권 연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전망

광주도심을 가로지르는 간선급행버스(BRT) 3개 노선이 구축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북구를 연결하고 도심 남북축을 잇는 ‘운암-각화 BRT’와 ‘효천-일곡 BRT’가 국가 계획인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됐다.

종합계획에 반영된 광주권 사업은 3개 노선으로 사업비는 1천508

억 원 규모다. 기존 계속사업인 ▲백운-매곡 BRT(총사업비 452억 원)에 더해 신규사업으로 ▲운암-각화 BRT(637억 원) ▲효천-일곡 BRT(418억 원)가 새롭게 포함됐다.

신규 노선인 ‘운암~각화 BRT’는 북구 산동교부터 도동고개를 잇는 총연장 8.4km 구간이다. 운암·두암·각화동 등 주요 주거 밀집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 내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신규 노선인 ‘효천-일곡 BRT’는 백운-매곡 BRT의 연장선

으로, 효천지구~옛 대동고, 광주공고~일곡지구를 잇는 총연장 6.0km 구간이다. 이 노선은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광주 남부권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현재 추진 중인 백운-매곡 BRT와 신규 노선들이 연계되면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 간선망 구축에 더욱 큰 동반 상승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향후 추진 성과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합리화위원 15명 공모

AI·반도체·에너지 등 규제합리화 전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를 국가발전 선도형 규제자유화지역으로 이끌 전담 민관협력기구(거버넌스)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15명을 8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교수, 변호사, 기업 관련 단체 임원 등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 ▲농정 ▲해양수산 ▲기타 규제개혁 ▲경제 ▲건설 ▲환경 ▲도시계획 ▲관광 ▲교통 ▲건축 ▲산림 ▲보건복지 등 15개 분야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규제 신설 및 강화 등에 관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특화 신산업 및 민생 분야 규제 특례 심사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 등 지역 규제혁신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 전남과 광주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규제혁신 심의기구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AI 복지행정’ 시범 운용

보건복지부와 ‘AI 정책실험실’ 협약 체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8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민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AI 정책실험실 실증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동구 13개 동과 서구 5개 동 등 18개 동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서비스 현장 실증을 추진키로 했다.

실증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복지 지원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실증 기능은 ▲복지사업 지침 검색 ▲복지상담 지원 및 민원 안내 ▲신청서류 검증 ▲맞춤형 서비스 안내 ▲사례관리 지원 등이다.

앞도적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발행인·편집인·대변인 이상용 홍보지원담당관 강성일

발행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580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무안청사 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광주청사 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 ‘새뜸’이란? ‘새롭다’와 ‘뜨다’의 합성어로 새롭게 뜨는 소리, 새로운 소식이란 의미가 담긴 조어입니다. 창간일 1997년 1월 15일 (매월 5·20일 발행)

독자 의견 접수·구독(무료)신청 ☎061-286-2074 팩스 ☎061-286-4721
인쇄처 한길인터라인 <비매품>

대표누리집 www.jeonnam-gwangju.go.kr
모두의 전남광주 news.jeonnam-gwangju.go.kr
전남광주TV tv.jeonnam-gwangju.go.kr

광양항 등 9곳 항만기본계획 반영

1조 596억 원 규모…해상풍력·재해방지·연안항 기능 보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양수산부의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에 광양항과 목포항 등 지역 9개 항만 개발사업 1조 596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해양물류 기반 확충과 미래 해양산업 육성에 나선다.

계획에 반영된 곳은 국가관리구역항인 광양항·여수항·목포항과 지방관리항인 완도항·녹동신항·진도항·강진항·홍도항·나로도항 등이다.

광양항에 반영된 사업은 ▲율촌

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호안 2단계 조성(2천783억 원) ▲제3투기장 전면 항로 준설토 159만 2000㎥(676억 원) 등이다.

목포항에는 신항 제3단계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호안 1200m(457억 원)을 비롯해 해상풍력 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은 ▲3만 재화중량톤(DWT)급 철재부두 1선석(797억 원) ▲3만 DWT급 잡화부두 1선석(797억 원) ▲자동차부두 60m 확장(199억 원) 등이다.

태풍과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해

방지시설 확충과 연안항 기능 보강 사업도 추진한다. 여수항 남산동 일원에는 호안 645m를 정비하는 재해방지시설 사업에 260억 원을 투입하고, 완도항에는 416억 원을 들여 파제제(방파제) 400m를 설치한다.

녹동신항은 카페리·유람선 부두의 명칭을 변경한다. 준설토 투기장 호안 1100m를 488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 진도항에는 ▲접안시설 보강(47억 원) ▲선회장 확장 준설토(86억 원) ▲물양장 보강(128억 원) 등의 사업이 반영됐다.

이 밖에 강진항 소형선 부두 기능 전환, 홍도항 선착장 평면배치계획 변경, 나로도항 물양장 증고 6억 원 등이 포함됐다.

‘폭염은 재난’...예산·인력·장비 총동원 대응

취약계층·노동자 보호 총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폭염 종료까지 대응 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 지역에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40도를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시·구·군 및 관계 기관과 폭염 대응 단일체계를 구축, 지역별 특성과 현장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예산, 인력, 장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시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섰다.

먼저 기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생활지원사 등을 통한 전화·방문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 쪽방 주민과 노숙인 등에는 쉼터와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가동한다.

건설 현장 등 야외 사업장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보건 조치 의무 ▲무더운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사업장 내 폭염 행동수칙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사항 등을 적극 이행토록 한다.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5도 이상 관측 지역 중,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 발표 시 긴급조치 외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

택배·배달 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조성과 폭염 대응 물품 지원도 병행한다.

도심에서는 교차로 그늘막, 안개형 냉각수(쿨링포그), 살수차 운영 규모를 확대해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농·수·축산 분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 또한 면밀히 살핀다.

농업인의 논밭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과 이·통장의 영농작업장 중심 예찰활동으로 작업

자의 건강을 확인하고, 10시~17시에는 야외 작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축산농가에는 축사 안개 분사 장치, 쿨링 패드,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를 지속 점검해 가축 폐사를 사전 차단한다.

수산 분야에서는 수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수온관측 시스템 120개소를 운영한다. 고수온 관측 시에는 양식장 액산 공급기와 차광막을 긴급 지원하고 현장 대응반을 통해 사료 공급 조절과 밀식 방지를 지도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에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덮이는 ‘이중 고기압’ 영향으로 8월 초중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38도를 넘나들 것으로 전망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폭염이 종료될 때까지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온열질환 저감 ▲취약계층 보호 ▲농어업 피해 예방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광복 81돌 ‘기림의 날’ 행사

역사다크투어 등 시민주도형 행사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 14.)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주제는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와 연대의 발걸음으로’다. 다크투어 ‘빛을 찾는 사람들’, ‘평화의 소녀상 반짝반짝 프로젝트’, 기억공간 ‘기억배달부, 잊혀진 역사를 찾아서’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민 역사기행 다크투어 ‘빛을 찾는 사람들’은 8월 8일 운영된다. 일제강점기 전쟁 유적과 강제 동원의 흔적을 살펴보는 탐방프로그램이다. 화정동 일제전쟁유적 동굴, 옛 505보안부대(5·18역사공원), 임동방직공장 터(발산마을조망) 등을 방문한다. 전남광주특별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명 선착순 모집(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062-365-0815)한다.

8월 3일부터 9일까지는 ‘평화의 소녀상 반짝반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6개 기관이 연합해 평화의 소녀상을 닦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프로그램이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일빌딩245 시민갤러리에서는 기억공간 ‘기억 배달부, 잊혀진 역사를 찾아서’를 운영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와 게임, 미션수행 체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림의 날 기념식은 8월13일 오후 5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 전남광주 지역에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예산, 인력, 장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시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폭염 속 이동노동자·폐지수집 어르신 ‘안전 지킨다’

구호물품 1만2000개 배부, ‘자원재생 활동단’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먼저, 재해 구호기금 1억 원을 투입해 7월 27일부터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쿨토시, 쿨

마스크, 의약구급함 등 폭염 대응 구호물품 1만2000개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 장소는 광주청사를 비롯해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쉼터 25개소, 첨단 24시간 쉼터 1개소, 시민참여형 쉼터 3개소 등 29개소다.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별로 대체 일자리 사업인 ‘자원재생 활동

단’을 운영,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안전하게 생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한낮 길거리 폐지 수집을 하지 않도록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내나 그늘에서 환경정화, 재활용품 선별·정리 등 자원재생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활동수당을 지원한다.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16면〉

☞1면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이어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국가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관,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후속 행정 절차 추진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산업단지계획 승인, 환경·교통 영향평가, 토지보상, 기반시설 구축 등 주요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2030년 6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시설(팹) 준공을 목표로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도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협력업체, 연구개발 기관이 집적하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후보지 추가 확장과 함께 주거·교육·문화·교통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방안도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착공 ‘AI 3대 강국 시동’

국가 핵심 디지털 인프라 관련기업·인력 유입 본격화 2028년 구축, 단계적 확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월 3일 해남군 산이면에 있는 기업도시 ‘솔라시도’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국가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센터 착공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AI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착공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영암군,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KT 등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 AI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초고성능 GPU 기반 컴퓨팅 자원을 구축·운영해 산업계와 연구기관,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핵심 디지털 인프라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2028년까지 40MW 규모로 구축되며, AI 수요 증가에 맞춰 2030년까지 80MW로 확장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2조 5천억 원으로, 솔라시도 내 5만㎡ 부지에 전산동과 운영동, 부속동 등이 조성된다.

이에따라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소프트웨어, 디지털서비스 등 관련 기업의 집적과 전문인력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학연 협력과 기술혁신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대표 AI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동시에 견인하는 전략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월 3일 장성군, 미국 AI 인프라 전문기업 AI 패브릭(AI Fabrik), ㈜에이파사드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6일 민관 합동으로 체결한 장성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첫 단계로, 20MW 규모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월 3일 해남군 산이면에 있는 기업도시 ‘솔라시도’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2028년까지 40MW 규모로 구축되며, AI 수요 증가에 맞춰 2030년까지 80MW로 확장될 예정이다.

첨단·평동산단 공정고도화

‘뿌리 AI 제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조업의 근간인 금형·용접·주조 등 뿌리산업의 체질 개선에 본격 나선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전통 제조산업을 미래형으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산업통상

부의 ‘뿌리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공정고도화 지원 사업’ 대상지로 첨단산단과 평동산단이 지정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60억 원이 투입된다. 단순한 기반 구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현장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현장의 공정 데이터를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통해 데이터 허브

를 만들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뿌리 AI 제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동산단 금형기업 12개사, 첨단산단 개 용접주조 21개사 등의 관련 설비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사업 시행에 앞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관계기관들은 7월 22일과 23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워크숍을 열고 구체적인 협업 체계와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 1구간 개통

6.25km 중 2.23km 우선 개통

광주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개설 공사 1구간인 ‘상무교차로~공항역 사거리’ 구간이 7월 31일 우선 개통했다.

우선 개통한 1구간은 총연장 6.25km 중 2.23km로다. 1구간 개통에 따

라 상무대로(공항역 일대)에서 무진대로·임방울대로 방향으로 직접 진입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무진대로 진입을 위해 우회해야 했던 상무대로 이용 차량의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 국도 13호선의 우회도로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상습 병목구간이 해소돼

통행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구간 개통에 이어 2구간(평동산단 연장)까지 개통되면, 고속도로와 평동산단 간 교통혼잡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남은 2구간 공사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 관광플랫폼 새단장

‘숙박할인 이벤트’ ‘전남 1+1 투어’ 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기존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을 전남광주관광플랫폼(JG TOUR)으로 개편하고,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와 ‘전남 1+1 투어’를 운영한다.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는 전남광주관광플랫폼 앱에서 숙박시설을 예약·결제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3박까지 최대 12만 원을 할인하는 행사다. 전남광주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전남 1+1 투어’는 전남광주관광플랫폼 앱에서 대상 체험상품을 구매하면 1명 가격으로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다. 요트 투어와 두륜산 케이블카, 녹차 족욕 카페 등 다양한 상품을 체험할 수 있다. ‘전남 1+1 투어’는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두 행사는 전남광주관광플랫폼 앱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여순 트라우마치유센터 개소

피해자·유족 심리 전담 치유

여순 10·19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 회복을 지원할 전담 치유기관인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가 7월 23일 순천에서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는 상담실과 사무공간, 휴게공간,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췄다. 전문 상담과 심리교육을 비롯해 미술·음악·원예·여행 등 치유 프로그램과 물리치료·신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전문 치유기관이다.

지역자활센터 11곳 ‘우수’

여수시민·광양·무안·신안 등…복지부 평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지역자활센터 간이평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자활센터 11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여수시민·광양·담양·구례·장흥·해남·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지역자활센터다. 선정된 센터에는 752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각 지역자활센터와 공유하고, 미흡한 분야는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여수·고흥·무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결정
남도 갯벌 생태 가치 인정
갯벌 유산 면적 88% 보유

여수와 고흥, 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25일 부산에서 제48차 회의를 열고 여수·고흥·무안 갯벌과 서산 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기존 ▲보성·순천갯벌 ▲신안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4개 구성요소에서 ▲보성·순천·여수·고흥갯벌 ▲신안·무안·탄도만 갯벌 ▲무안·함해만 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서산갯벌 총 6개 구성요소로 확대됐다. 2021년 1단계 등재 이후 5년 만이다.

유산 면적은 기존 1284㎢에서 287㎢가 추가돼 총 1571㎢로 늘어났으며, 기존 대비 1.2배 확대됐다. 이 가운데 1379㎢(약 87.8%)가 전남광주의 갯벌이다.

여수·고흥갯벌은 기존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여자만을 중심으로 연속된 생태축을 형성한다. 풍부한 염습지와 다양한 해조류, 철새 서식지를 갖추고 있다. 갯게, 붉은발말뚝게 등 법정보호종과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 물새의 주요 서식지이자 핵심 기착지이기도 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검은머리갈매기 월동지로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

닌다.

무안 갯벌은 신안 갯벌과 연결된 핵심 생태권으로 확대등재 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염습지와 모래·혼합갯벌 등 다양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흰발농게와 멸종위기 물새의 주요 서식지로 많은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길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정책관은 "이번 확대 등재는 한국의 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시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지속 가능한 활용을 통해 그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방학 초등학생 '틈새돌봄'

4500여 명에 점심·저녁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방학 틈새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초등방학 틈새돌봄은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전남광주 지역아동센터 179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1개소에서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4500여 명에게 점심·저녁과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다. 방학 기간 한정 특화 사업으로 학기 중 센터 이용 아동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한부모 가구 아동은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용 신청은 보호자가 틈새·점심 돌봄센터에 신청하거나 야간 연장돌봄 지원창구인 전국 공통번호(1522-1318)로 문의 가능하다.

여름철 호흡기 바이러스 주의

광주보건환경연, 위생수칙 준수 당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감기를 유발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손 씻기와 주기적인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최근 4주간(6월21일~7월18일) 지역 협력의료기관에 내원한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 검체 9종의 병원체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검출된 바이러스는 리노바이러스(21.6%)와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21.1%)로 나타났다.

리노바이러스와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다. 기침·콧물 등 호흡기 증상 외에도 위장관 감염증 등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민화, 초록에 물들다' 특별전

전남광주농업박물관, 8월 13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박물관이 8월 13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민화·채색화 특별전 '민화, 초록에 물들다'를 연다.

특별전에는 대한채색화협회 작가들이 전통 민화의 소재와 상징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작품 22점이 전시된다.

민화는 꽃과 나무, 새와 동물 등 친숙한 소재를 통해 건강과 장수, 부귀와 평안, 액운을 막고 복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실태조사 통한 고의·생계형 등 맞춤형 징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생계형 체납과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징수활동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29일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주권주의에 부응하는 세정 구현을 다짐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시·구·군 129명(시군 79명·자치구 50명)의 기간제노동자로 구성했다. 8월부터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실태를 조사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분납 등을 통해 제재를 완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체납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휴가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세계 유행 홍역, 출국 전 예방접종 확인...여행 중 개인위생 철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과 야외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요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여름철 주의할 대표적 질환으로는 홍역,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모기 매개 감염병 등이 꼽힌다.

◇ 전염력 높은 '홍역', 출국 전 예방접종 확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홍역은 필리핀, 몽골, 일본 등 주요 해외 여행지는 물론 미국, 멕시코 등에서도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전염력이 매우 높은 홍역은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과 함께 전신 발진을 동반한다. 특히 영유아나 임

신부 등 면역저하자는 폐렴이나 뇌염 같은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홍역을 예방하려면 출국 전 홍역 예방접종(MMR)을 2회 모두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고온다습한 날씨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주의=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증식을 활성화해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인해 발생한다. 휴가 지나 집단 급식시설 등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설사나 구토 등을 유발해 심각한 탈수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육류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는 게 좋다.

◇ 야외활동 때 '모기 매개 감염병' 대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질환은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을 공통 증상으로 하며 일부 질환은 발진을 동반한다. 야외활동 때는 밝은색 긴 옷을 입고 3~4시간 간격으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출국 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방문국의 감염병 발생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 중에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여행 이후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설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최근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친환경재배로 소비자 신뢰 높여

청무화와 재배하는 박혜민 청년농부

천적과 미생물로 병해충 방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당도 높고 장 건강에도 좋은 영암 청무화과를 ‘이달의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했다.

영암 청무화과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비타민, 칼륨 등이 풍부해 장 건강, 항산화 작용,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준다.

청무화과는 익어도 초록색을 띤다. 겉모습과는 달리 속은 빨갭다. 꺾 무화과라고 불릴 만큼 당도가 높고 맛도 좋다. 크기는 작지만 밀도가 촘촘해 무화과 특유의 존득거림도 느낄 수 있다.

영암에서 친환경 청무화과를 재배하는 박혜민 씨는 5년 전 귀농했다. 10년 이상 친환경 무화과를 재배한 어머니의 농업을 이어받아 친환경농업을 시작했다.

2021년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돼 영농 기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뒤 2023년 하우스를 설치하고 청무화과를 심어 친환경 재배에 나섰다.

박 씨는 청무화과 식재 전 녹비 작물로 지력을 높이고, 재배 중에는 보리와 자연초를 활용해 토양 유기물을 관리한다. 병해충은 팽이밥을 이용한 천적 관리와 미생물 활용



해 방제하고 있다. 바구미는 친환경 방제제가 없어 직접 포획하고 있다.

박 씨는 “친환경농업은 정성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소비자가 믿고 먹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보람이 크다”며 “품질 좋은 친환경 청무화과를 생산해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3ha에서 청무화과 농사를 지어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주요 판매처는 한살림이다.

올해부터는 백화점 납품과 온라인 택배 판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살림에는 일반 홍무화과 농협 수매가격보다 서너 배 높은 1만 2000~1만 6000원에 공급하고 있다.

◇ 박혜민 청년농부. 박 씨는 5년 전 귀농해 1.13ha에서 친환경 청무화과 재배를 하고 있다. 녹비 작물로 지력을 높이고, 보리와 자연초를 활용해 토양 유기물을 관리한다. 병해충은 천적과 미생물로 방제하고 있다. 지난해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새뜸이 무슨 의미인가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정 소식지 <전남광주새뜸>에 독자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새뜸’ 뜻을 물어 오는 독자가 심심찮다. 새뜸은 ‘새로운 소식’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2007년 백기완 선생의 제안으로 사용하게 됐다. 물설기만 하더니 이젠 이무렵다. ‘새뜸길’이 생겨나고, 새뜸중·새뜸초 등 학교 이름에도 쓰이고 있다. 독자 뜻을 받들어 백기완 선생의 제언(2007. 1. 20.)을 다시 게재한다. 흔쾌히 협조해 준 ‘백기완노나메기재단’에 고마움을 전한다. <편집자 주>

‘뉴스’를 ‘새뜸’으로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 붓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디선가 새로운 이야기 꺼리가 들려오면 그것을 ‘뉴스’라고 하질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뜻이 더 뚜렷하고 알찬 예술적인 말이 있기에 바로 잡았으면 해서 글을 띄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 ‘새뜸’입니다.

추운 겨울, 깊어가는 밤이 지겨워 “엄마, 해는 언제 뜨는 거야”하고 칭얼대면 “조금만 참아, 이제 곧 ‘새뜸’이 다가 온단다” 그러셨습니다. 이때 ‘새뜸’이란 반드시 다시 솟아오르는 해를 뜻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몇 해째 언제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아니 오시는 아버지가 그리워 “엄마, 우리 아버지는 언제 오시는 거야. 이거, 개엿이 먹고 싶어 죽겠구나 이거” 그렇게 칭얼대면 “응, 너희 아버지 말이야. 이제 곧 겨울을 갈라치며 부심이처럼 오신단다. 그때는 개엿 뿐이겠네. 너희 아버지께서는 엄청 큰 누렁소를 잡아가지고 오신다니까.”

그래서 죽어라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아니 오셔 또 칭얼댈 것이면 “조금만 더 참자고. 참는 애

들한테는 어떤 ‘새뜸’이든 반드시 ‘새뜸’이 날아온다니까.” 그러시던 ‘새뜸’. 그것이야말로 ‘뉴스’라는 말보다는 그 담긴 뜻이 한결 뚜렷하고 알차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오는 소리, 새롭게 가는 소리, 새롭게 뜨는 소리를 모두어 하는 말이오니 제발 ‘뉴스’란 말은 때려치우고 그 ‘새뜸’이란 말을 써야한다는 생각에서 붓을 들었사오니 어떻습니까. 제 말 좀 챙겨주실 순 없겠습니까.

장산꽃마루의 북소리를 기다리듯이 한이 맺힌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들려올 반가운 소리, 그것을 ‘뉴스’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새해 새아침부터는 ‘새뜸’이라고 해야하질 않을까요.

여러분, 올해엔 여러분의 앞날에 그야말로 어기찬 ‘새뜸’이 안팎으로 날아들기를 바랍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상 기후 피해 농민 지원

과수 이상저온·이상고온 피해 2650농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 4월 이상 기후로 피해 본 농업인에게 재해복구비 81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가의 피해 신고, 공무원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중앙합동조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2650농가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및 저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 폭염피해 최소화 온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개분무기를 비롯한 예방시설과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축사 화재 예방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18억 원을 들여 7개 폭염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환풍기·안개분무기 등) 지원 13억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100억 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61억 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 3억 원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27억 원 ▲낙농가 환풍기 지원 9억 원 ▲축사 화재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6억 원 등이다.

농가별 1대1 전담 공무원도 지정해 폭염 대응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방본부와도 협력해 축사 지붕과 내부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가축 음용수 확보가 어려운 취약 농가에 긴급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용수 가뭄 상황실 가동

저수율·용수공급 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강수량 부족과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하락에 대응해 영농이 완료될 때까지 ‘농업용수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전남광주 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9.4%로(7월 24일 현재) 평년 저수율의 86.6% 수준이다. 이에 전남광주특별시는 농업 정책과 중심으로 가뭄대책 상황실을 구성하고 시군별 저수율과 용수공급 상황, 가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가뭄상황실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해 저수율이 낮거나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고흥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일출이 아름다운 해변이다. 파도가 높아 ‘서퍼’들이 자주 찾는 서핑 핫플레이스다. 이곳에서 해마다 전국 서핑대회가 열린다. 사진 고흥군.

해안선 따라 점점이 박힌 남도 해수욕장

파도가 들려주는 감미로운 해조음과 바닷새의 노랫소리.

휴가철이다. 시원한 바다가 부른다. 전남광주에는 풍광이 빼어나면서도 한적한 해수욕장이 많다.

섬과 섬을 잇는 수많은 연륙·연도교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드라이브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자꾸만 가고 싶은 곳이다.

전남광주는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2000여 개의 보석같은 섬이 절경을 이룬 다도해를 끼고 있다.

그곳에는 아름답고 깨끗한 해수욕장이 점점이 박혀 있다. 청자빛 바다와 울창한 해송 숲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편안하게 쉬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활력을 충전하기에 으뜸이다.

▶**목포 외달도해수욕장**(목포시 달동)= ‘사랑의 섬’으로 불리는 외달도에 있다. 깨끗한 바다가 동행하는 해안산책로가 압권이다. 가족 피서객을 위한 해수풀장도 갖추고 있다. 펜션형 한옥민박과 마을 민박 등 숙박시설도 있다. 섬 휴양을 즐기기에 적합한 곳이다.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선으로 1시간 걸린다. 여객선은 매일 4회 왕복한다.



◇ 해남 송호해수욕장(위)과 보성 울포솔밭해수욕장(아래)

▶**여수 모사금해수욕장**(여주시 오천동)= 잔잔한 바다와 깨끗한 바닷물,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인상적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아늑하고 조용한 해변이다. 해돋이 명소이기도 하다. 주변 갯바위는 강태공들이 자주 찾는 낚시 포인트로 유명하다. 주변 해안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 좋다. 인근에 만성리검은모래해변과 신덕해수욕장이 있다.

▶**고흥 남열해돋이해수욕장**(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출이 아름다운 해변이다. 파도가 높아 ‘서퍼’들이 자주 찾는 서핑 핫플레이스다. 바다낚시를 즐기고 울창한 상록수림에서 휴식도 만끽할 수 있다.

▶**보성 울포솔밭해수욕장**(보성군 회천면 울포리)= 고운 모래밭과 해송이 어우러진 해변이다. 수심이 깊지 않아 해수욕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해수욕차량과 해수풀장도 갖추고 있다. 인근에는 회천수산물위판장, 보성비봉공룡공원, 비봉마리나, 바다낚시공원 등이 있다.

▶**해남 송호해수욕장**(해남군 송지면 송호

리)=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피서지로 좋은 해남 대표 해수욕장이다. 해송숲이 제방을 따라 이어져 있어 야영하기에 좋다. 가족 피서객을 위한 워터 슬라이드, 에어풀장 등 어린이놀이터를 금~일요일 운영한다. 바나나보트, 패들보드, 래프팅 보트, 땅콩보트 등 수상레저 체험프로그램과 거리공연도 진행한다.

▶**무안 톱머리해수욕장**(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해송숲이 자랑이다.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낙조로도 유명하다. 가오리, 돔, 송어가 올라오는 바다 낚시터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국적인 해변 조름나루도 가깝다.

▶**함평 돌머리해수욕장**(함평군 함평읍 석

성리)= 갯벌과 울창한 해송림, 아름다운 낙조가 어우러진 함평 대표 관광지다. 인근에 무지개 갯벌 탐방로를 비롯해 해수풀장, 오토 캠핑장, 해수찜치유센터 등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갯벌 체험과 뱀장어 잡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반달 모양의 모래 해변과 울창한 해송숲이 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다. 칠산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낙조가 아름답다. 어린이 물놀이장도 있다. 굴비와 백제불교 도래지로 이름난 범성포와 송이도, 낙월도가 가깝다.

▶**진도 가계해수욕장**(진도군 고군면 가계리)=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회동관광지 내에 있다. 3km에 달하는 백사장과 다도해와 어우러진 풍경이 빼어난다. 편의시설이 좋아 수련회 장소로도 제격이다. 갯바위에서 바다낚시도 즐길 수 있다. 인근에 진도해양생태관, 금호도 등의 관광지가 있다.

▶**신안 시목해수욕장**(신안군 도초면 시목마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다. 경사가 완만한 해변이 반원형으로 둥글게 펼쳐져 있다. 백사장의 길이는 2.5km, 폭은 100m다. 고운 모래와 해송숲 사이로 난 산책로가 압권이다. 청소년 야영장도 있다. 가족 피서지로 맞춤이다. 암태도 남강항에서 차도선을 이용하면 승용차로도 갈 수 있다. 40분 걸린다. 야간 운항도 한다.

전남광주 해수욕장			
시군	해수욕장	개장일	폐장일
목포시	외달도	7. 11.	8. 23.
	만성리		
	모사금		
	무술목		
	방죽포		
	웅천	7. 11.	8. 23.
여주시	장동		
	낭도		
	안도		
	유림		
	남열해돋이	7. 11.	8. 17.
	용동		
고흥군	연소		
	익금		
	금장		
	발포	7. 17.	8. 17.
	나로우주		
	염포		
보성군	덕흥		
	대전		
	풍류		
	울포솔밭	7. 11.	8. 23.
	수문	7. 10.	8. 17.
	송호	7. 16.	8. 17.
무안군	홀통		
	톱머리	7. 17.	8. 17.
	낙지공원		
	돌머리	7. 16.	8. 17.
	가마미	7. 13.	8. 17.
	송이도	7. 20.	8. 17.
영광군	신지명사십리	7. 11.	8. 17.
	금일명사십리		
	신지동고		
	약산가사		
	청산신흥		
	청산지리	7. 25.	8. 17.
완도군	보길중리		
	보길통리		
	보길예송		
	생일금곡		
	가계		
	금갑	7. 16.	8. 17.
진도군	신전		
	관매도		
	중도 쌍뚱어		
	중도 설레미		
	임자 대광		
	자은 백길	7. 17.	8. 17.
신안군	자은 분계		
	비금 하트		
	도초 시목		



영광의 가문들, 500년의 시간을 걷다

500년 넘는 고택 품은 영광 당산마을

대문이 남다르다. 여느 집과 달리 당당해 보인다. 대문은 3칸짜리 솟을대문이다. 처마에 정려가 걸려 있다. 1713년 숙종 때, 이 집에 살던 이상호의 지극한 효성을 기려 나라에서 내린 표창 가문의 기품을 더해준다. 전주이씨 양도공파 종가집이다. 이효상이 정착한 뒤 무려 500여 년간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고 있다. 이효상은 이성계의 조카이자 조선 개국공신인 이천우의 증손. 지금은 이 집에 사는 종손의 이름을 따 '이규헌 가옥'으로 불린다.

이규헌(李奎憲)은 수묵담채를 중심으로 산수화, 화조화 등을 그리는 화가다.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종가의 멋을 현대적 필치로 표현한다.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등의 경력을 지닌 국전 출신이다. 신체(정각) 장애의 한계를 이겨낸 화가이기도 하다.

이규헌 가옥은 임진왜란 때 의병의 거점으로도 쓰였다. 의병을 일으키고, 영광 수성도별장(守城都別將)을 지낸 이응종이 이 집을 의병청으로 삼고 수성 대책을 논의했다. 일본의 침략에 맞선 지역의 작전본부였던 셈이다. 이규헌 가옥이 이응종의 생가이다.

임진왜란 땀 의병 거점 쓰이기도

집도 격이 다르다. 솟을대문과 내삼문, 사랑채, 안채, 사당, 호지집 등으로 이뤄져 있다. 당시 양반들의 주거 형태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무엇보다 남성 공간인 사랑채와 여성 공간인 안채가 완벽하게 나뉘어 있다.

대문을 들어가면 오른편으로 사랑채 상선당(相善堂)이 자리하고 있다. 건축물이 위엄있고 반듯해 보인다. 마치 '나 이런 사람이야~'하며 으스대는 것 같다. 사랑채는 손님을 맞이하고 학문을

전주이씨 양도공파 종가 '이규헌 가옥'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한 매력 지녀

조선시대 남녀유별 교과서 보는 듯

논하던 공간이다. 상량문에 적힌 기록으로 볼 때 1895년 지어졌다.

안채는 사랑채 뒤쪽에 숨겨져 있다. 사랑채 옆 내삼문(중문)을 지나 안채로 들어간다. 아무라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를 하고 있다. '남녀칠세부동석'으로 일컬어지는 조선시대 남녀유별의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

안채의 뒷마루도 툭 튀어나와 있다. 요즘 아파트로 치면 광폭 베란다나 테라스 확장형 구조인 셈이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거뭇거뭇하고 단단해진 기둥, 자연스런 곡선을 고스란히 살린 대들보도 감성을 자극한다.

초가 형태의 호지집도 안채 옆에 있다. 호지집은 노비가 살던 부속 건물을 가리킨다. 한 울타리 안에서 양반과 노비의 주거 형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불천위 제사를 지내는 사당에 이천우 영정도 있다. 영정은 태종이 이천우의 공적을 치하하며 화공에게 그리게



1



2



3

◇ 이규헌 가옥에 얹힌 이야기를 듣는 영광고택체험 참가자들. 지난 7월 11일이다. ① 이규헌 가옥 중문. 사랑채에서 안채로 통한다. ② 이규헌 가옥의 사당.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 ③ 이규헌 가옥의 솟을대문. 처마에 정려가 걸려 있다.

했다고 전한다.

이규헌 가옥은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사람의 온기 끊이지 않고 이어온 것도 정겹다. 볼수록 마음 편안해지는 집이다. 조선시대 여름 어느 날, 양반집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영광고택 체험단이 찾아가는 이유다. 이규헌 가옥과 매간당 고택을 테마로 한 고택체험 주제는 '영광의 가문들, 500년의 시간을 걷다'이다. 이규헌 종손이 수묵담채를 통해 고택의 가치도 전한다. 고택체험은 국가유산청의 고택·종가집 활용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봄 시작된 영광고택체험은 늦가을까지 계속된다.

호국정신과 공동체 빛나는 마을

이규헌 가옥이 영광군 묘량면 영양리 당산마을에 있다. 이규헌 가옥과 어우러진 당산마을은 산자락 아늑한 곳에 동지를 틀고 있다.

옛날 이 산골에 백 년 묵은 지네와 천년을 기다린 구렁이가 살고 있었다. 둘은 하루가 멀다고 싸웠다. 두 영물의 싸움 때문이었을까? 가뭄이 자주 들어 민심이 흉흉하고 주민들 시름이 깊어만



이다. 효심을 인정받은 집이다.

이다. 500년 넘는 역사를 품은 고택이다.

갔다. 어느 날 한 주민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꼭대기 큰 바위에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마을의 평화를 비는 제사를 지내거라. 그러면 두 영물이 마을의 수호신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올라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 그날 이후 구렁이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지내는 땅속 깊은 데로 들어가 마을의 수맥을 지켜줬다. 마을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봉우리가 ‘당산(堂山)’이다. 그 아래 터를 잡은 마을이 ‘당산마을’이다.

마을에 커다란 당산나무도 있다. 일제강점 때, 일본인이 나무를 베려고 톱날을 대려다 벼락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날 이후 지금껏 당산나무를 건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당산나무는 오늘도 늙은 자태를 뽐내며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마을의 액운도 막아준다. 사람들이 지금도 정월대보름날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빌며 당산제를 지내는 이유다.

당산마을은 이 땅을 지켜온 선조들의 호국정신과 공동체 온기가 빛난다. 그 흔적과 정신이 지금도 살아숨쉬는 영광 당산마을이다.

강상헌의 풍류해자 -2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상헌 본적 해남, 태생 영암, 성장지 순천인 남도토박이. 순천고, 전남대, 중앙대, 동국대,美개럴라인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동아일보 기자,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위원, 이집트박물관 연구원, 우리글진흥원 원장,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동이겨레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남도의 ‘앞으로’ 정신, 무등산 햇불로 수렴된 ‘빛’을 공유하다

광주(光州)가 행정구역상 전남(全南)과 별개일 때도 무심코 ‘전남(전라도) 광주’라고들 했다. 오류로 느껴지기도 했던 그 지명이 2026년 7월부터 다시 바른 제 이름이 됐다.

‘통합’과 ‘특별’이란 장식어(裝飾語)도 달았다. 이 두 단어는 이 지역이 한국현대사에서 가지는, 일면 쓰라린 뜻을 보듬었다. 쓰라림의 그 농도가 열어질 즈음, 그 이산(離散)은 문득 마침의 종을 쳤다. 너끈히 넘어선 것이다. 광주가 전라도 아니고, 그럼 뭐요?

‘디바이드&룰(devide&rule)’의 의도였을까? 쪼개서 힘을 약하게 하거나, 쪼개진 부분들이 서로 반목하게 하는, 고대사로부터 활용되어온 통치의 꾀가 남도(南道)에서도 성공했을까.

남도라 부르는 전라남도 이름의 남녘 南, 동서남북(東西南北)의 한 방위(方位) 이름이다. 그러나 南은 우리 모두를 설레게 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뜻을 지닌다.

중요한 한자교재 천자문(千字文)의 여러 판본(板本)들이 南을 ‘앞’이라고 풀었다. 옛(당시) 표기로는 ‘앞’이다. 南이 전면(前面 front)이라니, 남녘 南이면서 앞(앞) 南인 것이다. 광주천자문(1575) 석봉천자문(1601)이 그렇고, 비슷한 시기의 한자교재 훈몽자회(訓蒙字會)나 신증유합(新增類合) 등 권위 있는 책들의 내용이다. 한자가 우리 생활에서 차츰 멀어지며 상당수가 잊고 살지만, 이 진취(進就)적 상징성을 어찌 외면하랴.

동근 지구를 걸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날 것(윤석중 동요 ‘앞으로’의 취지)이란 뜻은 참 크다. 호연지기(浩然之氣)다. 제주 바다와 함께 넘실 요동치는 태평양을 건널 기세다. 중국에는 없는, 이 ‘앞(앞)’이란 우리 겨레의 훈(訓)은 어떤 내력을 지닐까.

‘전진(前進) 앞으로’라는 남도의 뜻이다. 땅끝이 아니다. 대양(大洋)을 향한, 우주로 도약하는 뿔뿔이다. 돌아보지 마라, 폰 말고, 저 바다와 창공(蒼空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볼 일이다. 광주는 이 통합으로 수십 년 만에 ‘앞으로’의, 그 무구(無垢)의 순진(純眞)을 회복한다.

전남은? 보배섬 진도엔 ‘삼별초 왕국’의 증좌(證左) 용장 산성이 솟대처럼 솟았다. 또는 장흥까지 뻗어 내려온 동학(東學)의 맑고도 거센 기운을 아는가.

나주의 남파고택은 여태 대한의 학생독립운동 역사의 은은한 증거다. ‘우리는 피 끓은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광주일고 교정의 기념탑)

마침내 5·18민주항쟁의 오직 의로운 마음은, 그 햇불은, 빛고을의 진산(鎭山) 무등산에 뿔뿔. 박달임금 단군(檀君) 할아버지 이름을 무당산이라는 또 하나의 뜻으로 품은 저 산 위 찬란한 빛을 우러른다. 영원히 지지 않는다. 무등산은 알고 있다.

이제 전남은, 광주비엔날레의 취지처럼 그 불빛을 인류 모두에 쏘아 보내는 명분(名分)과 당위(當爲)를 회복한다. 우리는, 내일을 향해 쏴라. 미래처럼, 여태도 광주는 전남이었다.

에이아이(AI)가, 인공지능의 인류 대혁신이 이미 문 앞에서 있다. 이 통합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도 판을 못 바꾸는 처지에 갇히게 되었을지 모른다.

언론인·동이겨레원 원장



전남과 광주가 ‘통합’과 ‘특별’이란 장식어를 달고 하나가 됐다.

쪼개서 힘을 약하게 하거나, 쪼개진 것들이 서로 반목하게 하는, 고대사로부터 활용돼 온 통치의 꾀가 남도에서도 성공했을까.

이 통합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도 판을 못 바꾸는 처지에 갇히게 되었을지 모른다.



◇ 목포는 항구다. 태곳적부터 동아(東亞)지중해 중심 표지(標識)로, 이집트지중해 파로스 등대 같은 남도의 솟대였다. 그 광휘(光輝)를 인류를 향해 다시 뿔는다. (그림 조용백 作 ‘수목서정’)

1 토막새김 1

전남광주의 ‘광주(光州)’와 경기도 ‘광주(廣州)’는 어떻게 다를까? 하나는 짧게, 다른 하나는 길게 ‘광’을 발음한다. 한자가 달라서 그렇다.

전남광주의 光은 ‘빛 광’이다. 문자(한자)학 원리로 읽으면 光이 짧은소리(단음)인 [광주]다.

경기도 광주의 ‘넓을 廣’은 탁 트인 지형의 반영일 터. 긴 소리(장음)여서 [광:주]다.

어떤 한자사전엔 평상거입(平上去入)의 4성(聲) 표시가 있다. 이에 따라 평성(平聲)과 입성(入聲)은 대개 짧게, 상성(上聲)과 거성(去聲)은 길게 읽는다. 이는 현대중국어의 4성과는 다르다.



김준 곡성에서 태어났다. 전남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다. 어촌사회를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도 섬과 갯벌을 누비며 어민을 만나고 있다. 저서로는 <섬문화 답사기> <섬살이, 섬밥상> 등이 있다. 전남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섬마을 식당에 다국적 안내문이 붙은 이유는

요즘 김은 수산물만 아니라 한국 음식을 상징한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는 다양한 김 관련 상품이 넓은 매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김 양식 어업은 국가 중요어업유산, 국가인류무형유산 등 먹거리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유형무형 유산으로 새로운 자리를 잡았다.

최근 세계자연유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지주식 김 양식은 어민의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생업이다.

김 양식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섬, 김 양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가 소득을 올리는 섬이 있다. 시산도다. 시산도는 고흥군 도양읍에 있다. 섬의 모양이 화살을 닮아 '示山島'라 했다가 1995년 '詩山島'로 한자가 바뀌었다고 한다.

거금도와 소록도가 육지와 이어지기 전에는 녹동항에서 배를 탔다. 지금은 거금도 오천항에서 배로 30분이면 닿는다. 시산도로 가는 길은 배를 타는 시간은 짧지만,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다. 벌교에서 1시간, 광주에서 2시간, 서울에서는 6시간이 걸린다. KTX를 이용해도 순천역에서 승용차로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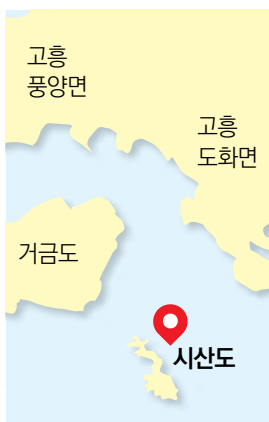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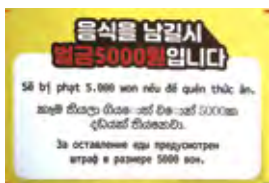
김 양식으로 최고 소득 올리는 섬

시산도는 다리로 연결되지 않는 섬 중 고흥에서 가장 큰 섬이다. 섬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길며, 마을은 북서풍을 등지고 섬 중앙 동쪽에 형성되었다. 마을 앞 솔섬과 살푸섬이 남동풍과 파도를 막는 방파제 노릇을 했다. 그곳이 1970년대 파도와 바람을 피하고 조류 소통이 잘 되어 김 양식을 했던 장소다.

지금은 두 섬 좌우로 방파제를 쌓아 너른 시산항을 만들었다. 시산항에는 고기를 잡



◇ 시산도 앞 김 양식장 풍경(2022년)과 시산도 음식점에 걸린 안내문(아래) ① 드론으로 찍은 시산항



는 어장 배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김을 채취하거나 김 양식장을 관리하는 배들로 가득하다.

이장과 어촌계장을 했던 김윤태 주민과 김 양식을 둘러싼 이야기를 마치고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작은 섬마을 식당이지만 웬만한 중식, 한식은 물론 주문하면 특별한 음식도 가능하다.

식당 내부는 잘 정도 되어 깨끗하고 맛도 좋다. 식당에 '음식은 먹을 만큼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이 3개 국어로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 김 양식장에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안내문이다.

시산도는 36가구가 김양식을 한다. 겨울철이면 김양식을 위해 2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문다. 김 양식철이 아닌 때에도 준비를 위해 일부는 섬에 머물기도 한다. 이들 직접 식사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바쁜 철에는 식당을 이용한다.

식당 앞 물양장에는 양식시설에 사용할 부표와 항목(김발을 바다 밑에 고정하는 나무), 김발에 연결하는 코팅한 대나무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곳곳에 펼쳐진 그늘막 아래에는 김 양식 시설을 만드는 외국 인노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겨울철엔 많은 외국인노동자 머물기도

시산도는 일찍부터 김 양식으로 유명했다. 옛날에는 마을 앞 솔섬 살푸섬 주변에 대나무를 꽂아 김 양식을 했다. 이를 지주식 김 양식이라 한다. 1970년대 만해도 김 양식 규모는 40미터 김발 한 채를 기준으로 가구당 10여 줄 정도였다. 지금은 어가마다 100미터에 이르는 김발이 수백 줄에서 1000여 줄에 이른다.

양식장도 동쪽으로 지죽도 서쪽으로 평일도, 남쪽으로 무학도에 이르는 너른 바다로 확대되었다. 김양식 기술이 발달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옛날에는 손으로 훑어서 채취하고, 세척과 분쇄 그리고 김발에 떠서 건조하는 일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했다. 마을 골목마다 건조대가 세워지고 그곳에 새까맣게 김발을 붙여 말렸다. 바닷가, 골목, 산아래 발까지 건조대를 세울 수 있는 곳이면 모두 김을 말렸다. 모든 가족이 총동원되었다.

지금은 베트남, 스리랑카, 러시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 와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다. 마을 식당에 3개 국어로 쓰인 안내문이 나붙은 이유다.

처음 시산도를 찾았을 때 고추를 비롯해 양념 채소들을 재배했던 밭은 숲이라 해야 할 것 같지만, 바다는 경지정리가 잘된 논처럼 양식장이 만들어졌다. 그 사이 바다는 김발으로 바뀌고 텃밭은 산이 되었다. 덕분에 자식들은 먹고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섬을 찾아온다.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생활불편 NO, 언제나 부르면 OK.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행복시책이다.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늘진 곳을 살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온정’이 담겨 있다.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이·통반장,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120번)로 연락하면 된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대원 간의 화합을 위해 매월 칭찬 대원을 선정하고 있다.

귀농 귀촌한 이들이 중심 ‘구례의 어벤져스’

문필자 구례군 마산면 복지기동대장

“더 열심히 활동하라고 칭찬대원으로 선정해 준 것 같아요. 취약계층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칭찬 대원으로 선정된 문필자 대원의 일성이다. 문 대원은 구례군 마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구례군 귀농귀촌협의회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취약계층 생활 불편 사항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 없는 구례군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문필자 대장을 추천한 구례군 주민복지과 유리 주무관은 “지나해 취약계층 35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주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문 대장이 이끄는 마산면 복지기동대는 16명. ‘구례의 어벤져스’로 통한다. 대원들의 활동 모습을 본 지역민들이 붙인 별칭이다.

“마산면 복지기동대는 구례로 귀농 귀촌한 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기 전문가부터 설비, 도배장판, 목수까지 현업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죠. 종합 설비회사를 차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활동 무대도 마산면뿐만 아니라 구례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산면 복지기동대 활약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최상이다. 마산면 복지기동대가 ‘땀’하면 남은 집이 안전하고 깨끗한 보금자리로 변하는 까닭이다.

“농촌의 집들은 습기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 곰팡이가 많이 피어요. 도배를 하더라도 집안 살림살이를 모조리 밖으로 빼내야 하잖아요. 살림살이를 뺀 김에 집 청소와 쓰레기 처리까지 완벽하게 끝내죠. 그사이 전기 전문가는 누전 위험이 있는 낡은 콘센트와 스위치, 배전반을 교체하고, 설비 전문가는 고장난 수도나 대문 등을 손보죠.”

잦은 활동만큼이나 가슴에 남는 일도 많다. 저장 강박증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 생활하던 어르신 집을 3일 동안 치웠던 기억, 피복이 벗겨져 화재 위험에 노출된 전선을 긴급 복구했던 일, 물받이 통을 교체하고 대문 도색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문 대장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은 따로 있다. 지난해 2월 화



◇ 문필자 대장이 이끄는 구례군 마산면 복지기동대는 ‘구례의 어벤져스’로 통한다. 귀농 귀촌한 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구례 만들기 전력

전기·설비·목수 등 전문가 다수 포진

지난겨울 화재 현장 복구 기억 남아



재가 발생한 어르신 집을 긴급 복구했던 일이다. 전문 업체들도 손사래를 치던 일을 복지기동대가 출동해 폐기물 처리와 전기 전선 보수, 도배장판 교체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화재 현장이잖아요. 대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하니깐요. 복지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복지기동대 밖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대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죠. 참혹하더라고요.”

까맣게 그을린 벽과 녹아내린 가구들. 참혹한 화재 현장을 본 대원들은 앞다퉈 팔을 걷어붙였다. 잔해를 치우고, 전선을 다시 깔았다. 녹아내린 창틀

과 창문 치수를 다시 재고 주문 제작해 달았다. 대원들의 노동력과 기술력을 집약해 쏟았다. 일반 업체에 맡기면 수천만 원이 소요될 일이었다.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힘을 합치니까 되더라고요. 추운 겨울 어르신들이 다시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됐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복지기동대 활동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인터뷰가 마무리될 즈음, 문 대장의 스마트폰이 나지막이 울린다. 도움을 기다리는 이웃의 신호다. ‘부르면 언제나 달려간다’며 서둘러 차에 오르는 문 대장이 뒷모습이 아름답기만 하다.

채관병 소방경, 소방교육혁신 최우수상

현장지휘관 평가체계 개선방안 발표 최고 점수 획득...행안부 장관상

전남광주소방학교 소속 채관병 소방경이 ‘제31회 중앙 소방교육혁신 경연대회’에서 연구개발 분야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소방교육혁신 경연대회는 재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 소방교수요원과 우수 논문을 발굴하고자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주관으로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직급별·직무별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주제로, 전국 소방학교와 시도 소방본부에서 12명이 참가했다.



◇ 채관병 소방경. 전남광주소방학교 소속인 채 소방경은 ‘제31회 중앙 소방교육혁신 경연대회’에서 연구개발 분야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채관병 소방경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행위중심 루브릭 개발’을 발표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채 소방경은 이번 수상을 통해 11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제43회 공공HRD콘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학교는 1996년 개교 이후 중앙소방학교 주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총 25회 수상했다. 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경연대회에서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3회, 장관상 6회를 받아 소방교육훈련 명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광주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 정다빈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

아원참 선생 김호연

2027년 브라질 여자 월드컵 무대에 꼭 서겠다

“2027년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FIFA 여자 월드컵 무대에 서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겨루는 그날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으뜸인재(예체능리더)로 선정된 ‘한국 여자축구의 신성’ 정다빈(20·노르웨이 스타베크 포트발)의 시선은 2027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여자 월드컵으로 향해있다. 지난해 노르웨이 1부 리그에 진출하며 유럽 무대에 당당히 입성한 그는 더 큰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어릴 적 수영, 태권도 등 다양한 운동을 즐겼지만, 축구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하남중앙초 4학년 시절, 동네 남자 축구팀에서 취미로 공을 차기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축구에 깊이 빠져들었죠. 결국 부모님께 정식으로 축구를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길을 걷길 원치 않았던 부모님의 반대로 정다빈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약 1년간 축구화를 벗어야 했다. 그러나 축구에 대한 열망을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축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확인한 부모님은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정다빈은 광양중으로 전학해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재능은 광양여고에서 만개했다. 중학교 시절 미드필더에서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그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하며 팀의 에이스로 거듭났다.

정다빈은 고교시절 활약상을 바

광양중학교 진학하며 본격적인 선수 생활 시작

유소년 대표 이어 국가대표에도 이름 올려

탕으로 고려대에 진학했다. U-12(12세 이하)부터 U-20까지 연령별 대표팀에 모두 발탁된 정다빈은 마침내 A 대표팀(성인 국가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태극마크를 단 그는 빠르게 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는 오랜 기간 관심을 보여온 노르웨이의 스타베크 포트발에 입단하며 유럽 진출의 꿈을 이뤘다.

정 선수는 자신의 성장이 전남광주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으뜸인재로 선정돼 훈련 용품이나 재활 치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제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더 힘이 났습니다. 전남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정다빈은 최근 발표한 2026 아시안게임에 나설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다빈은 “2027년 열리는 여자 월드컵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해, 더 높은 리그에 진출해 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다빈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 정 선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으뜸인재(예체능리더)로 선정된 ‘한국 여자축구의 신성’이다.



전남광주새뜸 구독(무료)신청 ☎061-286-2074

일자리정보

※문의-일자리종합센터 ☎061-287-1142(무안) ☎061-750-7700(순천),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061-287-1143(무안) ☎061-750-7736(순천)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만원)	경력/학력	마감일
고흥	송한의원	간호조무사	1	061)835-1075	월250	무관/무관	9.20
광산	(주)비전디에스엠	자동차 부품 조립(검사 포함)	3	062)952-2722	월215	무관/무관	9.20
	수원현대정비서비스(주)	총무·일반 사무	1	062)952-9990	월215	무관/무관	9.21
광양	주식회사 엠에이치산전	경리 사무(일반사업체)	1	061)794-8830	연2600	무관/무관	9.21
	광양산이고온마린파크어린이집	보육교사	1	061)791-4300	월231	무관/무관	9.22
구례	구례병원	병원행정 사무	1	061)780-3337	연2600	신입/무관	9.22
나주	에코우드 주식회사	굴착기 운전	3	061)333-8970	연3000	무관/무관	9.21
	한원푸드시스템(주)	자재·구매 사무(음식료품)	1	061)333-9503	연3200	무관/무관	9.22
	광주씨티병원	간호조무사	1	062)460-7631	연2670	무관/무관	9.20
남구	대한요양병원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1	062)520-9000	연2918	무관/무관	9.21
	효사랑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	1	062)417-8899	월216	무관/무관	9.21
담양	단청	주방 보조(일반 음식점)	1	061)383-6123	월330	무관/무관	9.21
동구	김앤김치과의원	치과위생사	1	062)525-1128	월215	무관/무관	9.21
	굿윌스토어 밀알광주MBC옛터점	영업 관리자	1	062)233-9193	월223	무관/무관	9.20
	(북)동광어린이집	보육교사	1	062)222-7460	월230	무관/무관	9.20
	다나온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	1	061)277-2557	월215	무관/무관	9.21
목포	푸른마을	사회복지사	1	061)279-7388	월230	무관/무관	9.22
	주식회사 에이치맨철강	총무·일반 사무원	1	061)279-5501	월230	무관/무관	9.22
무안	(유)동희축량설계공사	총무·일반 사무원	1	061)454-5602	월230	무관/무관	9.21
	중흥토건(주)어뮤즈파크 남악점	매장 계산원	1	061)801-7773	월241	무관/무관	9.21
	유한회사 우주선박기술	조선·해양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	061)802-0822	월250	무관/무관	9.22
북구	지오구조안전진단(주)	경리 사무	1	062)514-0480	연2650	무관/무관	9.22
	우신건설산업 주식회사	토목공학 기술자	1	062)571-5123	월220	무관/무관	9.19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만원)	경력/학력	마감일
서구	상무365한방병원	간호사	1	062)385-9000	연3100	경력/무관	9.22
	주식회사 지엔아이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1	062)959-0101	월220	무관/무관	9.22
순천	주식회사 효성실버	조리사	1	061)746-8845	월215	무관/무관	9.21
	보금자리재활노인복지센터	단체급식 조리사	1	061)755-3690	월230	무관/무관	9.20
신안	(주)참마트	매장 계산 및 요금 정산	2	061)726-1110	월231	무관/무관	9.20
	신안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 관련 종사	4	061)271-4147	월215	무관/무관	9.21
여수	(주)제일이앤씨	건설·전기 생산 관리자	1	061)686-5720	연3500	무관/무관	9.20
	주식회사 용호기계기술	공업 배관공	5	061)686-5258	연3600	무관/무관	9.21
	주식회사 유심천래자산업	매표·복권 판매	1	061)808-5844	월215	무관/무관	9.21
	부림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1	061)686-2907	월228	무관/무관	9.20
영광	영광노인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	2	061)353-8760	월215	무관/무관	9.21
영암	영암한라점현대자동차	자동차 정비	3	061)461-2222	월230	무관/무관	9.22
	영암노인전문요양원	간호사	1	061)471-1389	월235	무관/무관	9.22
완도	기성테크 주식회사	금속 공작기계 조작	5	061)463-1143	월250	무관/무관	9.21
	감나무협동조합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	1	061)555-3854	월220	무관/무관	9.22
장흥	국공립동화어린이집	보육교사	1	061)864-5200	월231	무관/무관	9.15
함평	(유)주안환경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1	061)285-0904	월296	무관/무관	9.20
	대림3농장	한우·육우 사육	1	062)942-1205	월220	무관/무관	9.21
해남	함평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	1	061)323-9988	월240	무관/무관	9.20
	강디자인	간판 제작 설치	1	061)535-9000	연2800	무관/무관	9.20
화순	주밀리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	1	061)534-7622	월220	무관/무관	9.20
	구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텔레마케터	1	061)870-7770	연2592	무관/무관	9.21
	마루요양병원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1	061)373-9104	월218	무관/무관	9.21

돌아온 나주 다보사 보물 ‘신중도’

분실 30년 만에 본래 자리로
보존 처리 후 일반 공개 예정

19세기 나주 재가신도들의 발원으로 조성된 ‘신중도’가 분실된 지 30여 년 만에 조계종 총무원의 노력으로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나주 다보사(주지·만민 스님)는 최근 총무원 문화부가 추적 회수한 신중도(사진)가 다보사로 7월 16일 돌아왔다고 밝혔다.

돌아온 신중도는 세로133cm, 가로52cm 크기로, 상하 구도로 이루어진 불화다. 상단에는 제석전을 중심으로 한 천부신중을, 하단에는 위태천과 천룡팔부중을 배치했다.



화면의 존상들은 정제된 도상을 보이는데, 이는 19세기 후반 조선 불화의 전형적인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한다.

채색은 붉은색(홍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녹색과 청색을 조화롭게 배치해 안정감 있는 색채 구성을 이룬다. 필선의 운용도 안정적이며, 세부 문양과 존상의 표현에서 치밀한 소묘력이 돋보인다. 당시 호남 지역 불화의 높은 제작 수준을 보여 준다.

다보사는 신중도에 대해 전문가 정밀 조사와 보존 처리한 후, 사찰 내에 봉안해 신도와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나주 금성산에 있는 다보사에는 나주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소조십육나한좌상, 괘불탱 보물 3점이 있다.

나주 윤이정 명예기자

토막소식

화순군, 출향인에게 여행비용 50% 지원

화순군과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12월 13일까지 출향인 고향 방문 지원사업인 ‘화사로와, 화순’을 진행한다. ‘화사로와 화순’은 화순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에게 화순 여행비용 50%(화순사랑상품권+기념품)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070-8839-6141)누리집에 하면 된다.

화순 최순희 명예기자

해남공룡박물관, 특별 프로그램 운영

해남공룡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일요일에는 버블 풍선쇼 등 특별공연, 토요일에는 페이스 페인팅 체험을 진행한다. 청림공룡 화석을 찾으면 기념품을 주는 ‘청림 발굴 대작전’ 이벤트도 벌인다. 이와 함께 공룡 무드등 만들기를 비롯한 10여 종의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물놀이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남 박미래 명예기자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 청소년 후원금 전달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수남)는 7월 16일 담빛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지난 5월 담양대나무축제 기간동안 9개 단체 회원들이 먹거리 판매로 얻은 수익금이다. 담양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서명원)도 회원 45명이 참여해 창평면 주민을 위한 연합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취약계층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찾아 주거환경 정비, 이미용, 이동세탁, 칼갈이 등 생활과 밀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담양 김양금 명예기자

곡성군 중국 중학생 초청 홈스테이

곡성군은 7월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보타구 학생들을 초청해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중 학생들은 함께 생활하며 올해 20주년을 맞은 국제교류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홈스테이 기간 중국 학생들을 한국 가정의 일상을 함께하며 정을 나누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곡성 김동미 명예기자

백련재 문학의 집 하반기 입주작가 모집

해남군은 ‘백련재 문학의 집’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입주작가를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7명이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개별 화장실을 갖춘 1인 1실 집필공간이 제공된다. 무선인터넷, 공동주방, 다목적실, 북카페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과 백련재 문학의 집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 박미래 명예기자



영광군, 물무산 유아숲 물놀이장 운영

◇ 영광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무산 유아숲 체험원 물놀이장’을 7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운영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영광군은 개장에 앞서 시설물과 전기설비,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안전요원도 상시 배치 했다. 개장기간 동안에도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과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용객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영광 박혜숙 명예기자

영화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 3관왕

ICJ 국제영화상 등...화순 청풍초 전교생 제작 참여

화순 청풍초등학교 전교생이 함께 만든 영화가 세계 무대에서 연이어 호평을 받으며 3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청풍초 전교생이 공동 제작한 50분 분량의 영화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감독 박기복)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손녀가 화순의 역사적 상징인 탄광을 탐방하며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아이들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는 뛰어난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2026 ICJ 국제영화상’ 개막작 선정에 시



작으로 ‘2026 스코틀랜드 스칼렛 국제영화제’ 학생영화상, 이탈리아 ‘나이트 오브 쇼츠 밀라노 국제단편영화제’ 최우수 가족영화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화순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화순 최순희 명예기자

‘영광서 살아가기’ 수료

참가자 군남면으로 전입 ‘성과’

영광군이 ‘영광에서 살아가기’ 제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영광에서 살아가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영광농촌에 머물며 영농 활동과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실제 정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제1기에는 5명이 참여해 군남면 초록이마을에서 생활하며 영광의 농촌 환경과 지역공동체 문화를 경험했다. 참가자 가운데 1명은 군남면으로 전입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영광 박혜숙 명예기자

‘반도체 지원 상설특위’ 구성·운영

의회 차원 지원체계 구축 위원장 김성일 의원 선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의회가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공장)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전남광주통합시의의회는 7월 22일 제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키고, 위원장에 김성일 의원(해남·사진),

부위원장에 한 귀례(광산) 의원을 선출했다.

반도체 특위는 앞으로 반도체 팹 4기 신축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예산 지원 검토와 정부 건의,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견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용수와 전력 등 핵심 기반시



설 확보와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교육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분야별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일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산업 기반 시설뿐 아니라 인력 양성과 정주 환경 등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관련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사회 상설특위’ 출범

위원장에 박필순 의원…전남광주형 기본사회 기반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의회는 기본사회 관련 주요 현안을 조사·연구하고 대안 마련 등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통합시의의회는 7월 22일 제2회 임시회에서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필순 의원(광산구·사진)을 선출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전남광주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만큼, 그 성과가 지역사회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득과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를 아우르는 전남광주형 기본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격차 없는 전남광주’ 촉구

정희선 의원, ‘전남광주런’ 구축 등 제안

정희선 의원(순천·사진)이 7월 22일 제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주 지역·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직면한 교육격차는 지역 존립이 걸린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과 직결된 문제”라며 “신입생 감소에 따른 폐교와 청년층의 지역 유출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공공교육 플랫폼 ‘전남광주런(가칭)’ 및 통합 교육복지 체계 구축



▶지역 대학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학습 멘토링 상생 모델 운영

▶교육·산업·국제교류가 결합된 지역인재 육성 생태계 조성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서울런’ 사례를 언급하며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취약계층과 인구 감소 지역 학생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광역 통학버스, 돌봄, 주거복지까지 연계한 ‘통합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을 피력했다.

‘강제처분’ 소방본부가 책임져야

소방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이숙희 의원(북구·사진)이 화재·구조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에 따른 민원과 소송은 소방본부가 전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7월 16일,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강제처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현장 소방관들을 사후 책임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적법한 소방활동이었음에도 차량이 파손된 차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하면, 그에 따른 소송 대응과 심리적 압박은 고스란히 현장 대원 개인의 몫이 된다”며 “소방본부가 전면 나서 대원을 보호하고 ‘강제처분’과 관련한 민원·소송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 현장을 찾아 주요 사업 현황을 살피고,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소방위원회는 7월 23일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현장 중심 의정 ‘현장에 답 있다’

시의회 상임위 의정활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 현장을 찾아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나섰다. 상임위는 현장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과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개정과 예산 반영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순천에서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했다.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정일)는 7월 28일 종합건설본부 소관 사업인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현장과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사업 현장을 방

문, 노동자 작업 환경과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9일에는 광주도시공사 소관 사업장인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현장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현장 찾아 공정 진행 상황과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박성재)는 7월 23일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현장을 찾아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안전실태 점검과 해남소방서가 주관한 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참관했다.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위원장 박원종)는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영광군을 찾아 주요 산림자원의 보존 현황을 살피고, 신재생에너지 핵심 축으로 부상한 해상풍력 발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안평환)는 7월 21일 지역 보건복지 최일선 기관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호남권역재활병원’을 방문해 고령화 대책과 장애인·소아 공공재활 의료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형석)는 7월 21일 광주 실감콘텐츠큐브와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AI와 실감콘텐츠 분야의 청년취·창업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청년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이 참여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홍기월)는 7월 20일 전남문화재단, 전남관광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관광공사를 방문해 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섬 주민에게 병원선은 최후 보루

오늘도 섬 주민들은 육지에서는 당연하게 누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야 한다.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섬에서는 가벼운 진료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응급상황에도 육지 병원까지 가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을 앓는 주민은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 인력과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섬이 3390개(2024년 기준)가 있다. 이 중 유인도는 480개. 81만 명이 섬에 살고 있지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시설이 설치된 섬은 19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88개 섬에는 기본적인 보건의료시설조차 없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섬 주민에게 병원선은 사실상 의료의 최후 보루다. 병원선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섬에 찾아가 진료와 처방,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섬 주민 건강을 지키는 이동형 공공의료 수

의원논단

최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신안



단이다.

그러나 병원선의 역할에 비해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병원선 업무는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돼 있지만,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상 악화로 운항이 어려울 때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기 어렵고, 국가건강검진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연계에도 제약이 따른다. 병원선과 보조정을 이용하는 주민의 법적 보호와 선박보험 적용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병원선 1척당 연간 운영비는 7억 원에서 15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유류비가 50~60% 차지한다. 병원선은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크다.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수단인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섬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 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본적인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기상 악화로 병원선이 운항하지 못하면 만성질환 처방마저 어려워지는 현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 의료 접근성의 차이가 곧 생명과 안전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 문제를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 병원선 운영 실태와 의료인력, 안전관리 현황을 자

세히 점검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을 보완해야 한다.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면세유 적용과 국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올해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섬박람회'는 우리 지역 섬의 생태적 가치와 해양문화, 미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섬의 가치는 아름다운 풍경과 관광 자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곳에 사는 주민이 의료와 복지, 안전한 생활 기반을 보장받을 때 비로소 섬은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

섬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섬 주민의 오늘을 살펴야 한다. 섬 주민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 권리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병원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섬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섬의 미래는 결국 그 섬에 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출범 한 달째를 맞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다. 전라남도도와 광주광역시와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역사적인 선택이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강점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다른 지역보다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전남은 친환경 농수산업과 해양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광주는 AI,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광융합, 문화콘텐츠 등 첨단산업의 기반을 갖춘 혁신도시이다.

전남의 풍부한 산업자원과 광주의 첨단기술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첨단산업과 농생명산업, 해양산업, 문화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별기고

유용은

자치행정연구소장
행정학박사



특히 AI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전략산업이다. 광주의 AI 연구개발과 반도체 설계, 소재·부품 산업,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전남의 스마트농업, 해양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융합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남부권 경제성장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산학연 혁신체계를 구축해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의 핵심 가치는 지역균형발전에 있다. 전남의 농어촌과 중소도시, 광주의 도심이 함께 성장해야 특별시 출범의 목적이 실현된다.

의료·교육·문화·복지·교통 등 생활 기반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하고 농산어촌 주민들도 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특별시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광역교통망 구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하나의 특별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특별시 전역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대중교통체계와 환승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교통은 사람과 산업,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자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성장의 토대이다.

행정통합은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경제와 생활, 문화가 함께 통합될 때 비로소 특별시의 가치가 완성된다. 주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 공동체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 중앙정부도 특별시

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특별시는 자치권과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범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행정통합이라는 외형적 성과를 넘어 시민들이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광역교통망 구축, 주민 화합, 자치분권 강화가 조화를 이룰 때 특별시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제 통합의 성과를 시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가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체감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320만 특별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성장할 것이다.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위험
요인

체온조절 능력 저하 · 만성질환 · 약물 (이뇨제, 항콜린제, 비스테로이드소염제 등) 복용



냉방기기를 사용하여 실내를 시원하게 하고 자주 환기하기

- ☀ 집 근처 무더위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하기
- ☀ 냉방기기가 없거나 낮 시간대에는 무더위 쉼터 이용하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 기저질환(콩팥병 등)으로 수분 섭취 제한 받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하기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 ☀ 야외활동 시 그늘에서 충분히 쉬기



더위에 대비하여 기저질환 관련 생활관리 상담하기

- ☀ 약 복용 관련 상담하고 복용 계획 세우기
- ☀ 복용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상담 내용에 따라 복용하기
- ☀ 더울 때 외출을 줄이기 위해, 복용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기



가족·이웃과 자주 연락하고 비상연락망 지니고 있기

- ☀ 안부 확인을 위해 가족, 이웃과 연락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연락하기
- ☀ 더위 노출 후 온열질환 증상(두통, 경련,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내원하거나 119 구급대 연락하기



어르신 보호자용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어르신과 수시로 연락하고 건강상태 및 약 복용 확인하기

- ☀ 무더위를 대비하여 어르신과 연락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1일 1회 이상 안부 살피기
- ☀ 더위 노출 후 온열질환 증상(두통, 경련,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내원하도록 유도하기 * 의식이 없으면 119 구급대 연락하기



냉방기기를 사용하여 실내를 시원하게 하고 자주 환기시키기

- ☀ 집 근처 무더위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하여 어르신께 알려주기

